

■ 아프간서 폭탄 테러...한국군 1명 사망

체니 노린 탈레반 잔당 소행 추정

동·다산부대 직접 겨냥 아닌 듯...파병부대 테러 경계령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7일 3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낸 아프가니스탄 자살 폭탄테러로 우리 군 병사 1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참은 "사망한 윤장호(27·통영역) 병장은 사건 당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안내를 위해 기지 정문 앞쪽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현재 윤 병장 외에 한국군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탄테러로 우리 군 사망자가 발생하

자 바그람 미군부대는 즉각 동·다산부대로 알렸으며, 동·다산부대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관련사실을 보고했다. 합참은 이날 테러가 바그람 기지에 있는 동·다산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탄테러가 공교롭게도 체니 미국 부통령이 전격 방문한 바그람 미군기지 정문 밖에 발생한 점으로 미뤄 동·다산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형이다.

체니 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폭탄테러가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추가로 있을지도 모를 공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동·다산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등 해외파병부대와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

관심합참의장은 사망 보고를 받은 뒤 즉각 대책반 구성과 함께 해외파병부대에 테러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윤 병장의 부모에게도 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합참은 긴급대 작전참모본부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파병 부대 지

휘관들에게 부대 및 부대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동·다산부대는 의료 및 공병요원을 주축으로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01년 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주둔했으나 탈레반 잔존세력과 알카에다 등에 의한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탈레반 세력의 저항은 갈수록 강해져서 지난해에는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139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5배나 늘어났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치안상 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 한국군 해외 파병 현황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27일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한국군 병사 1명을 포함 1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한국군의 해외 파병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걸프전, 동티모르, 서부 사하라 등에 부대를 파견했다.

현재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과 탈레반과의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는 동·다산부대 200여명이 각종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미군과 이라크 반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 2천300여명이 파병돼 재건 및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파병됐으며 다산부대는 공병, 동의부대는 의료지원부대이다.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배후세력 색출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에 2002년 3월 의료지원단을, 2003년 2월에는 공병단을 파견해 각종 재건사업에 나섰다. 다산·동의부대원 200여명은 현재 바그람

아프간·이라크에 2,500명...레바논 350명 파병 예정



지난해 9월 성남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다산·동의부대 환송식 모습. /연합뉴스

기지에 주둔하며 각종 건설공사와 동맹군 및 지역주민 의료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다산부대는 그동안 기지내 비행장 활주로 보수공사와 부대 방호시설 공사, 주변 도로 보수·확장 공사 등 300여건의 공사를 성공적

으로 수행했다. 이날 폭탄테러로 숨진 윤장호(27) 병장은 이 부대 통역병으로 활동해왔다.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는 지난 2002년 2월 개원 이후 22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쳐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원들은 지난해 9월 교대병력으로 파병됐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 연장동의안에 따라 올해 말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다산·동의부대의 파병을 내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라크 자이툰부대=2004년 9월 파병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3천400여명이 파병됐고 현재 2천300여명이 남아 있으나 올해 안에 1천200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파병기간을 연장했지만 연내 업무종결 계획을 국회에 제출기로 해 연내 철수 가능성도 있다. 자이툰부대는 지금까지 230여개 평화·재건사업을 추진해왔다.

레바논 파병(예정)=정부는 오는 6~7월께 350여명의 평화유지군(UNIFIL)을 레바논 서남부 티르(Tyre) 지역에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 무장단체인 헤브라와 이스라엘 간 적대행위 감시 및 현지 주민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미국과 FTA 체결 결사 반대”



수천명의 코스타리카인들이 26일 수도 산호세에서 코스타리카-미국간 자유 무역협정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간·침팬지 조상, 410만년전 작별”

美 연구진 영장류 연구 DNA 분자시계 비교 발표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 온 인류와 침팬지가 갈라진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700만~500만년 전이 아니라 불과 410만년 전이라는 연구가 발표돼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에스거 호볼트 박사 등 연구진은 인간과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네 종류의 영장류 DNA의 ‘분자 시계’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미국 과학도서관의 유전자 분야 워너널 PLoS 지네틱스에 발표했다. ‘분자시계’ 이론은 모든 DNA가 일정 비율로 돌연변이를 일으

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단기간에는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지 않으나 수천년에 걸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연구진은 “오랑우탄이 갈라져 나간 시점은 1천800만년 전으로 잡는다면 인간과 침팬지의 분화 시기는 400만년 전이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또 두 종이 갈라지기 직전 개체군 규모가 약 65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분자시계 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고 인류가 420만년 전 직접분화했음을 보여주는 화석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北 BDA 동결계좌’ 내주 중 일부 해제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50여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일내 마카오 당국에 공식 통보, 이르면 내주 중 동결계좌 중 합법자금 일부가 선별 해제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측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동결계좌 문제가 17개월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전에 해제될 자금은 전체 2천400만달러 가운데 약 1천100~1천300만달러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 2005년 9월 이후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들에 대한 미 재무부

의 조사가 곧 종결될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중국과 마카오 당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2천400만달러 전부를 해제해 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합법자금으로 판명된 것만 선별해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1천100만달러 정도가 해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천200만, 1천300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이 BDA문제를 최종 협의하기 위해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의 대변인에서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미 재무부 대표단의 방문은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할 것을 골자로 한 2·13 베이징 공동성명이 나온 지 2주만에 이뤄진 것이다. /워싱턴-홍콩-연합뉴스

결산공고 光州日報 광고국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전화 : (직)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합병공고

주식회사 차림에서는 2007년 2월 23일 주식회사 진명에서도 2007년 2월 23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차림은 주식회사 진명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차림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월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7년 2월 27일
“강” 주식회사 차림
남원시 보령면 서처리 209-1
대표이사 송규환

“을” 주식회사 진명
남원시 보령면 서처리 209-1
대표이사 송규환

주유소매매

현성업증
광주동구소대동 (시내권)
시내에서 화순방향
대면접
대지: 약350평
건평: 약148평
매도가: 15억
주인 직거래
T.011-625-7170

2007광주충장로축제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07광주충장로축제 개최에 따른 기획·관리·진행·홍보·관객 유치활동 등을 대행할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축제 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축제 추진위원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문구청장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07 광주충장로축제 [주제: 우리의 70년]
- 개최일 : 2007. 10. 9(화)~10. 14(일) (6일간) ※ 공연이벤트 및 개장식 : 10. 9(화)
- 개최장소 : 광주시 충장로, 광안로, 동남로, 예술의거리, 구시행사거리 일원
- 주최/주관 : 광주시청, 광주광역시 동구, 광안로축제추진위원회
- 참가규모 : 광안로 200만명 이상 유치 목표
- 주요 행사 : 개장식(주최: 광주시청), 축제(주최: 광주시청), 공연(주최: 광주시청)
- 소요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 480만원 (주최: 380, 행사유치금: 100)

2. 모집자격
- 광안로 일원 및 동남로 일원 이벤트 진행 업체로 본회의 개최/관객 유치, 기획을 위한 구성원을 보유한 업체 (단, 공연단체는 제외)
- 광고 및 홍보 업체로서 광안로 일원 및 동남로 일원 이벤트 진행 업체에 있는 법인
3. 기획안 작성요령
- 접수 : 2007. 3. 9(금) 11:00
- 문의 : 광주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내보 : 축제추진 기획안(기획안 작성방법)을 작성한 후
- 내보 : 축제추진 기획안(기획안 작성방법)을 작성한 후
- 내보 : 축제추진 기획안(기획안 작성방법)을 작성한 후
4. 기획안 및 견적서 제출
- 기 기 : 2007. 3. 2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기획안, 견적서
- 예산서(인건비 포함) 1부
- 2001~2006년 실적서 1부
- 예산서(인건비 포함) 1부
- 2001~2006년 실적서 1부
- 2001~2006년 실적서 1부
5.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성립 : 2007. 3. 26(수) 18:00까지
- 계약의 성립 : 2007. 3. 26(수) 18:00까지
- 계약의 성립 : 2007. 3. 26(수) 18:00까지
6. 기타사항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7. 기타사항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8. 기타사항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 기타사항 : 2007. 3. 26(수) 18:00까지

(제19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17,940,515,609	I. 유동부채	9,499,923,193
1. 현금	17,344,423,588	1. 매도채권	2,015,136,756
2. 단기금융자산	1,971,566,042	2. 매도채권	1,925,124,261
3. 매출채권	10,042,618,057	3. 매도채권	46,819,486
4. 기타금융자산	700,000,000	4. 매도채권	436,350,562
5. 매출채권	4,174,679,831	5. 매도채권	1,381,481,188
6. 기타금융자산	241,745,798	6. 매도채권	2,854,850
7. 매출채권	11,007,950	7. 매도채권	26,267,151
8. 기타금융자산	287,142,289	8. 유동부채	760,874,037
9. 매출채권	18,300,000	9. 유동부채	8,530,314,961
10. 기타금융자산	47,792,082	10. 유동부채	2,689,751,337
11. 매출채권	996,968,738	11. 유동부채	31,471,118
12. 기타금융자산	62,252,399		
13. 매출채권	13,923,588		
II. 고정자산	596,092,021	II. 고정부채	9,584,391,595
1. 토지	596,092,021	1. 매도채권	1,039,707,214
2. 건물	596,092,021	2. 매도채권	7,495,234,088
3. 기계장치	596,092,021	3. 매도채권	2,666,260,970
4. 기타	596,092,021	4. 매도채권	476,224,166
5. 토지	596,092,021	5. 매도채권	2,448,700,010
6. 건물	596,092,021	6. 매도채권	24,716,000
7. 기계장치	596,092,021	7. 매도채권	1,331,050,000
8. 기타	596,092,021	8. 매도채권	1,301,853,037
9. 토지	596,092,021	9. 매도채권	
10. 건물	596,092,021	10. 매도채권	
11. 기계장치	596,092,021	11. 매도채권	
12. 기타	596,092,021	12. 매도채권	
13. 토지	596,092,021	13. 매도채권	
14. 건물	596,092,021	14. 매도채권	
15. 기계장치	596,092,021	15. 매도채권	
16. 기타	596,092,021	16. 매도채권	
17. 토지	596,092,021	17. 매도채권	
18. 건물	596,092,021	18. 매도채권	
19. 기계장치	596,092,021	19. 매도채권	
20. 기타	596,092,021	20. 매도채권	
21. 토지	596,092,021	21. 매도채권	
22. 건물	596,092,021	22. 매도채권	
23. 기계장치	596,092,021	23. 매도채권	
24. 기타	596,092,021	24. 매도채권	
25. 토지	596,092,021	25. 매도채권	
26. 건물	596,092,021	26. 매도채권	
27. 기계장치	596,092,021	27. 매도채권	
28. 기타	596,092,021	28. 매도채권	
29. 토지	596,092,021	29. 매도채권	
30. 건물	596,092,021	30. 매도채권	
31. 기계장치	596,092,021	31. 매도채권	
32. 기타	596,092,021	32. 매도채권	
33. 토지	596,092,021	33. 매도채권	
34. 건물	596,092,021	34. 매도채권	
35. 기계장치	596,092,021	35. 매도채권	
36. 기타	596,092,021	36. 매도채권	
37. 토지	596,092,021	37. 매도채권	
38. 건물	596,092,021	38. 매도채권	
39. 기계장치	596,092,021	39. 매도채권	
40. 기타	596,092,021	40. 매도채권	
41. 토지	596,092,021	41. 매도채권	
42. 건물	596,092,021	42. 매도채권	
43. 기계장치	596,092,021	43. 매도채권	
44. 기타	596,092,021	44. 매도채권	
45. 토지	596,092,021	45. 매도채권	
46. 건물	596,092,021	46. 매도채권	
47. 기계장치	596,092,021	47. 매도채권	
48. 기타	596,092,021	48. 매도채권	
49. 토지	596,092,021	49. 매도채권	
50. 건물	596,092,021	50. 매도채권	
51. 기계장치	596,092,021	51. 매도채권	
52. 기타	596,092,021	52. 매도채권	
53. 토지	596,092,021	53. 매도채권	
54. 건물	596,092,021	54. 매도채권	
55. 기계장치	596,092,021	55. 매도채권	
56. 기타	596,092,021	56. 매도채권	
57. 토지	596,092,021	57. 매도채권	
58. 건물	596,092,021	58. 매도채권	
59. 기계장치	596,092,021	59. 매도채권	
60. 기타	596,092,021	60. 매도채권	
61. 토지	596,092,021	61. 매도채권	
62. 건물	596,092,021	62. 매도채권	
63. 기계장치	596,092,021	63. 매도채권	
64. 기타	596,092,021	64. 매도채권	
65. 토지	596,092,021	65. 매도채권	
66. 건물	596,092,021	66. 매도채권	
67. 기계장치	596,092,021	67. 매도채권	
68. 기타	596,092,021	68. 매도채권	
69. 토지	596,092,021	69. 매도채권	
70. 건물	596,092,021	70. 매도채권	
71. 기계장치	596,092,021	71. 매도채권	
72. 기타	596,092,021	72. 매도채권	
73. 토지	596,092,021	73. 매도채권	
74. 건물	596,092,021	74. 매도채권	
75. 기계장치	596,092,021	75. 매도채권	
76. 기타	596,092,021	76. 매도채권	
77. 토지	596,092,021	77. 매도채권	
78. 건물	596,092,021	78. 매도채권	
79. 기계장치	596,092,021	79. 매도채권	
80. 기타	596,092,021	80. 매도채권	
81. 토지	596,092,021	81. 매도채권	
82. 건물	596,092,021	82. 매도채권	
83. 기계장치	596,092,021	83. 매도채권	
84. 기타	596,092,021	84. 매도채권	
85. 토지	596,092,021	85. 매도채권	
86. 건물	596,092,021	86. 매도채권	
87. 기계장치	596,092,021	87. 매도채권	
88. 기타	596,092,021	88. 매도채권	
89. 토지	596,092,021	89. 매도채권	
90. 건물	596,092,021	90. 매도채권	
91. 기계장치	596,092,021	91. 매도채권	
92. 기타	596,092,021	92. 매도채권	
93. 토지	596,092,021	93. 매도채권	
94. 건물	596,092,021	94. 매도채권	
95. 기계장치	596,092,021	95. 매도채권	
96. 기타	596,092,021	96. 매도채권	
97. 토지	596,092,021	97. 매도채권	
98. 건물	596,092,021	98. 매도채권	
99. 기계장치	596,092,021	99. 매도채권	
100. 기타	596,092,021	100. 매도채권	

자 산 총 계 53,621,092,692 부 채 총 계 53,621,092,692
위의 값이 광고함.

2007년 2월 28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원용진

인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복

교정직특채

3월 1일 개강

시험예정일	6월경(예상)-
-------	----------